

~8시 30분까지

(1) 도서관

2-4반
키번호: 8번 출석번호: 62번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화창하고 맑음

제목 :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에 갔다.

흥미진진 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전에도 가봤었다.

오늘은 전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왜냐하면 국립민속박물관의 체험관을 예약
했기 때문이다.

거기서 3시간 동안 흥미야기속으로도 배우고

낮을 잘라봐도 하고 한복도 입고

동서체험관도 갔다.

박물관에서 철쭉이 알록달록 아름답게

피어서 사진도 많이 찍었다.

마당에서 민속놀이도 했다.

저녁에는 흥바사를 먹었다.

맛있었고 이런 맛은 처음이었다.

집으로 올 때 사촌동생이 머리를 깎았단다.

집에 오니 너무 피곤한 하루였다.

그래도 아뵐에 또 가서 다른 체험

도 하고 싶다. 우리 조상들이 사는 모습을

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게 됐고

그래도 조상들의 지혜를 볼 수 있어

좋았다.